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갑보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 쇄 : SNS인쇄
 02-2277-0245

제127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7년 9월 30일

제7차 청성백재각건립추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개최일시 : 2017년 9월 26일(화요일) 11:00
- 개최장소 : 동보성 중식당(서울 중구 퇴계로 18길5)
- 참석인원 : 재적 11명 중 8명 참석
- * 참석자 : 위원장(갑보), 부위원장(상화)

위원(상록, 상식, 응섭, 재면, 정보), 간사(언태)

대중회는 청성백 재각건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7차 청성백재각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재각건립 추진경과와 성금접수 및 지출현황 보고에 이어 재각 및 삼문 현판제작, 현성기념비 설치, 기념식수 접수, 준공식 초대인사 및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범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부의안건	의결내용
재각 및 삼문의 현판 글씨 심의 건	청성백재각 명칭인 靑城齋와 삼문의 명칭인 靑城門의 현판 글씨를 4명의 종친이 응모한 바, 그 중 안동중회 심재덕 회장의 작품을 채택(선정)하여 현판을 제작하기로 의결함
현성기념비 건립 심의 건	청성백 재각건립 기금을 헌성해 주신 지파종회와 종인들의 헌성내역을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도록 현성기념비를 건립하기로 하고, 설치 위치와 모양 및 기념비에 기록할 제목과 내용 등을 의결함 * 현성기념비에는 1천만 원 이상 헌성한 지파종회와 1백만 원 이상 헌성한 종인을 기록하되, 이외 헌성해 주신 모든 분들의 내역도 별도로 알미늄 조각이나 스텐부식 등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기로 의결함
기념식수 접수에 관한 건	청성백 재각건립을 기념하고, 동시에 재각주변의 조경을 품위 있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지파종회와 종인들이 원할 경우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의결 함
준공식 초대인사 및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에 관한 건	청성백재각 준공식에 외부인사 초청 범위를 논의하고,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대상에 대중회 갑보 회장과 공사시공자, 공사감독관 및 재각과 관리사 위치를 선정해준 재열 일가를 추천함

* 청성백 재각건립을 기념하는 기념식수에 참여할 뜻이 있는 지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2017. 10. 20까지 대중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靑城伯齋閣 獻誠記念碑(案)

本 靑城齋는 靑松沈氏 始祖(諱:洪孚)의 曾孫子이시며, 特進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政丞을 지내신 4世祖 靑城伯·定安公(諱:德符)의 享祀를 받들기 위해 建立되었다.

公께서는 고려조 대명외교와 왜구토벌에 功을 세워 청성부원군에 봉군되고 門下侍中을 지냈으며, 조선조 靑城伯에 봉해졌고 左政丞에 올라 經綸을 펴시어 沈門을 名文家의 班列에 오르게 하시고, 膝下에 7형제를 두시어 오늘날 沈門의 中興과 繁榮을 이루게 하시었다.

우리 後孫들은 公의 蔭德을 받지 않은 자가 없건만, 宗財가 貧窮하여 수백 년이 지나도록 公의 齋室을 마련하지 못하고 눈비 오는 날이면 너무 초라하게 祭祀를 모셔 오다가 2014년 4월 청송심씨대중회 회장으로 選出된 甲輔 會長이 재각 건립을 추진하기로 決心하여 같은 해 11월에 청성백재각건립추진위원회를 發足하였고, 적극적인 獻金運動을

展開하여 많은 誠金이 遷至되었으며, 2015年9月2日 着工하여 2017年3月30日 上樑하고, 2017年11月3日 마침내 우리 後孫들이 항상 念願하였던 本 齋閣이 完工되었다. 이에 崇祖의 精誠을 다한 熱情어린 誠金內譯을 後世에 전하여 崇祖尙門의 기틀을 振作코자 하는 바이다.

2017. 11. 3
 청송심씨대중회



2017. 9. 20 현재 재각 모습

2017년 丁酉年 秋享祭 奉行 日程表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場所	主管
始祖	文林郎公(諱:洪孚)	10.28	09.09	토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3, 보광산	大宗會
	中臺墓所	10.28	09.09	토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산1, 중대산	大宗會
二	閣門祇侯公(諱:淵)	10.30	09.11	월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산64-1, 남당산	大宗會
二	奉翊大夫公(諱:晟)	11.13	09.25	월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 (설단)	大宗會
三	靑華諱府院君(諱:龍)	11.01	09.13	수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산19-6, 묘전	大宗會
三	靑華諱府院君 配位 金氏	11.01	09.13	수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64 묘전	大宗會
三	判書公(諱:漣)	11.13	09.25	월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 (설단)	大宗會
三	上護軍公(諱:鄉)	11.13	09.25	월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 (설단)	大宗會
四	靑城伯(諱:德符)	11.03	09.15	금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大宗會
四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11.05	09.17	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大宗會

★時享 奉享時間 : 始祖 12時(正午) 그 외는 午前 11時에 奉享함★

심씨명현보감-2

忠惠公(諱: 連源) 심씨명현보감(沈氏名賢寶鑑)

《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임기가 만료되어 내직으로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제수하였다가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옮기고, 이조 참의와 승정원 부승지(承政院副承旨)에 이르러 사건으로 인해 사표를 냈으나 곧이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

기해년(己亥年, 1539년 중종 34년) 봄에 진향사(進香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이 되었다가 호조·형조·이조의 3조 참의를 거쳐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이 되었으며, 다시 병조 참의가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품계를 가선大夫(嘉善大夫)로 올려 경상도 안찰사(慶尙道按察使)로 나갔는데, 공이 학문을 힘써 권함은 바로 풍화(風化)의 근본이라고 여겨 힘써 유생들을 장려하고 또 사건 처결하기에 부지런히 하여 적체된 일을 힘써 제거하다가 마침 이로서 질병으로 교체되어 상호군(上護軍)에 임명되었다가 공조 참판(工曹參判)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이 되었으며, 다시 대사성이 되어서 수년 동안에 훈유(訓誘)하는 공력을 끝내 게을리 하지 않고 인재를 양성하는 효험이 종전보다 훨씬 많았다. 형조 참판으로 옮겨 부총관(副總管)을 겸했고, 다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의금부 동지사(義禁府同知事)를 겸하였다.

을사년(乙巳年, 1545년 인종 원년)에 호조 참판을 거쳐 품계가 자헌大夫(資憲大夫)로 뛰어올라 호조 판서(戶曹判書)가 되어 국옥(鞫獄)하는 일에 참여하여 일을 모두 실정에 맞도록 하였으므로 형서(刑書)를 바꾸었다. 다시 정헌大夫(正憲大夫)에 올랐는데, 이때 중종(中宗)과 인종(仁宗)이 연이어 승하하여 조책(用冊)의 사절(使節)이 앞뒤로 사방에서 일어 지출의 조달이 크게 모자랐으므로 공이 용비(用費)를 살펴 헤아려서 공사(公私)에 있어 양편을 구제해나가자 사람들이 모두들 편리하였다고 하였다.

공이 중국어를 해득하여 의관복식도 중국제도에 따랐다. (명나라) 행인(行人, 사신) 장승헌(張承憲)이 황주(黃州)에서 돌아갈 때 공이 전별(餞別)이 명을 받고 그와 수작하는 즈음에 통역을 쓰지 않고 유창하게 대화하니 행인이 탄복하였다. 이 때문에 항상 사역원의 제조(提調)를 겸임하였는데, 병으로 해임되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고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임명되어 지경연도총관(知經筵都總管)을 겸하였다. 다시 예조 판서로 옮겨 춘추관 동지사(春秋館同知事)를 겸하였고 우찬성(右贊成)으로 발탁되었다가 좌찬성으로 전직하였다.

을사년(乙巳年, 1545년 인종 원년)의 국옥에 참여한 공을 책록하여 특별히 추성 정란 위사공신(推誠定難衛社功臣)의 호를 하사받고 청천군(靑川君)에 봉해졌다. 무신년(戊申年, 1548년 명종 3년) 겨울에 정승을 임명하는 일

이 있어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이 되고 나아가 청천 부원군(靑川府院君)에 봉해졌으며, 다음 해 가을에 좌의정으로 승진되었다.

경술년(庚戌年, 1550년 명종 5년)에 다시 양종(兩宗, 선종(禪宗)·교종(教宗))을 세우는 명이 내리자, 공이 '이단(異端)을 일으키는 성상(聖上)의 정치에 크게 누를 끼친다'고 하면서 백관을 거느리고 조정에서 간쟁하였지만 관철되지 못하였다. 이때에 공론이 통일되지 못하였고 공이 홀로 힘써 버티어 굳게 간청하기를 수십 일 동안 하였는데, 비록 임금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나 조야(朝野)에서 장하게 여겼다. 겨울에 병을 핑계로 사직했으나 운허받지 못하고 신해년(辛亥年, 1551년 명종 6년) 가을에 영의정에 올랐다.

2년 뒤인 계축년(癸丑年, 1553년 명종 8년) 가을 경복궁 안에 큰 불이 나서 상하가 놀라고 당황하였는데, 임금이 공에게 선증(繕葺) 총책을 맡기자 공이 힘써 옛 관습을 폐하지 않고 후관(後觀)을 사치스럽지 않게 공정(工程)을 경계해 감독하여 겨우 2년을 지나 완공됨을 보고하자, 임금이 기뻐하시어 포상을 내린 은전이 실로 보통보다는 특이하게 하였다. 일이나 본래 이 공궐을 처음 개창(開創)할 때 청성백(靑城伯, 심덕부(沈德符))이 총관하여 이루었는데, 공이 또 수상으로서 다시 중신(重新)의 공을 세우니, 같은 조상과 자손이 함께 공사를 관리하는 노고가 성대하게 드러났으므로 사람들이 다들 이상한 일이라고 하였다.

을묘년(乙卯年, 1555년 명종 10년) 겨울에 병을 이유로 들어 두 번 사직하였고 정사년(丁巳年, 1557년 명종 12년)에 또 네 번씩이나 사직하며 말씀이 더욱 간절하였으나 운허하지 않았는데, 공이 비록 병 때문에 사직함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실상은 너무 성만(盛滿)함을 두려워한 것이다. 가을에 세자 책봉(世子冊封)이 있어 또 공에게 그 일을 감독하게 하자, 의물(儀物)의 제도를 힘써 지극히 강구(講究)하여 차등 있게 구별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체제를 얻은 데 탄복하였으며, 특별히 말과 안장을 하사하여 포상하였다.

이때 명나라에서 칙사(勅使)가 장차 오게 되었으므로 공이 병들어서 접대하기 어려울 것을 알고 상소하여 해임시켜 줄 것을 재삼 간절히 청하였는데, 임금이 유시하기를 "평소에 있어서는 경솔하게 허락함이 마땅치 않겠지만, 이번에는 칙사가 지켜보는 터라 상신(相臣)에 결원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한 바를 힘써 따르겠다."고 하자, 좌의정 상진(尙震)이 아뢰기를, "덕이 높은 원로 대신이 떠나고 머무는 것은 족히 조정의 경중(輕重)이 됩니다. 청컨대 그대로 유임시켜 병이 나을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사관을 보내어 공에게 타이르기를, "어제 경의 체직을 허락한 것은 내가 마지못하였는데, 오늘 좌우 정승이 서로 같은 말로 유임시키고 아뢰니 이는 공의(公議)라. 경은 그대로 유임하여 조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공이 매양 오랫동안 병환 중에 있으면서 직위를 조건하는 것으로 탐연(貪戀)함이라 여겼기 때문에 직위를 벗어나게 되면 고질(痼疾)을 몸에서 떨어버리어 조석의 연명(延命)을 기대하였다가 그대로 유임시킨다는 말을 듣게 되자 병세가 갑자기 심해지므로, 다시 사임의 글을 올리지 않고 상소를 갖추어 결해(乞骸, 사퇴하여 고향에 가서 뼈를 묻겠다고 청함)의 심정을 매우 진달하였는데, 임금이 어필(御筆)로 답하기를, "근일에 경의 사퇴를 운허한 것은 나의 실수이다. 좌상(左相)의 계청은 역시 여러 사람들의 심정이니, 이에 청원함을 운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이 또 해임의 청원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학문을 힘쓸 것(근학)과 간언(諫言)을 따를 것과 어진 이를 친히 할 것과 아첨하는 자를 멀리할 것과 백성을 무휼(撫恤)할 것과 포상(褒賞)을 신중히 할 것'의 여섯 가지 일을 조목별로 적어 올렸는데, 임금이 글로써 정원(政院)에게 내리기를, "노성(老成)한 이를 유임시키는 것이 비록 나라를 위함에 있어 절실하겠으나 요양함을 허락하는 것 역시 신하를 보전하는 데 중대한 일이니, 그 점을 좌·우상(左右相)에게 유시하노라." 하였다.

- 다음호에 계속 -



① 심연원의 묘
② 묘비





공자와 음악 (孔子와 音樂)

심재석(중보편집위원, 문학박사)

《論語》를 읽다가 孔子께서 音樂에 대단히 조예가 깊었고, 애호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논어에서 散見되는 구절을 인용하여 보기로 한다.

팔일편(八佾篇)에 보면 공자가 고대 帝王 舜이 지었다는 악곡 소(韶)를 평해서 “미의 극치이며 또 선의 극치이다(盡美矣又盡善也)”, 그리고 周나라 武王이 지었다는 악곡 武를 평하기를 “미의 극치이긴 하지만 선의 극치라고는 말할 수 없다(盡美矣未盡善也)”라고 하였다.

음악에 문외한인 필자가 공자의 평을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武王과 舜王의 양위를 비교해 보면 그의 평이 단순히 음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연관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舜임금은 평화리에 堯임금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仁政을 베풀었기에 그 음악 또한 美와 善의 극치였을 것이다. 周의 武王은 武力으로 폭군인 殷의 紂王을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했으므로 설사 德으로 天下를 다스린 왕이라 해도 음악에 殺氣가 서려 있음직하기 때문이다.

《述而篇》에서 “공자는 喪을 당한 사람과 동석해서 음식을 드실 때에는 배불리 잡수시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공자는 用喪을 가실 때에는 그가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는 일이 없었다(子食於有喪者之側未嘗飽也 子於是日哭則不歌).”

아무리 무식꾼이라 해도 喪主와 더불어 음식을 먹을 때 배가 부르도록 먹지는 않을 것 같다. 공자의 삼가 하는 행동이 많은 제자들과 이웃들에게 모범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또 문상을 가는 사람이 신나게 노래 부르는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공자가 문상 가는 날에는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는 걸 보면 대단히 노래를 가까이한 모양이다. 아마도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는 즐겨 들었던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자가 음악에 얼마나 조예가 깊었던 지를 말해 주는 구절로 가본다. 《述而篇》에 이르기를, “공자가 齊나라에 머물러 계실 때 舜 임금이 지었다는 韶를 들으시

고 석 달 동안 이에 열중하시어 고기 맛을 모르실 형편이었다(子在齊聞韶三月不知肉味).”고 한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석 달 동안 음악에 심취하여 침식을 잊을 정도였다는 것이겠다. 이 ‘고기 맛을 모르실 형편이었다’는 구절을 朱子는 ‘마음을 그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것은 생각지 못하는 것(蓋心一於是而不及乎他也)’이라고 해석하였다. 위의 구절은 계속된다, 曰不圖爲樂之至於斯也라고. 얼마나 감동에 젖었으면 ‘이토록 훌륭한 음악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극찬을 했겠는가.

공자는 또 노래를 시키는 機智도 있어서, “남과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상대가 잘 부르는 경우에는 그에게 거듭 부르게 하고 난 뒤에 그와 합창을 했다(子與人歌而善 必使反之而後和之- 述而篇-).” 공자는 그다지 목청이 좋았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노래를 듣는 귀가 발달했던 것 같고 독창보다는 그들과 어울려 합창하는 것을 즐겼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점은 조선의 名君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였다.

세종은 노래 자체는 별로였으나 듣는 능력이 뛰어난 ‘知音’의 소유자였다. 그러므로 세종 대에 조선의 독특한 악보인 井間譜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편경(編磬)이라는 악기를 제작할 때 세종의 정확한 음조절로 그것이 완성된 것이다.

이처럼 공자는 음악을 통해 사람의 예절을 실천하고, 인간관계의 소통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沈영감의 심민섭



중대산 입구 심문의 상징인 만지송

살의유머 아파트 작명

옛날 아파트 이름은 단순했다.
삼성아파트, 롯데아파트, 현대아파트...
그런데 요즘 아파트 이름이
왜 이리도 길고 복잡할까?
거기다 복잡한 영어까지 넣어서...
예를 들면
타워팰리스,
미켈란체르빌,
아카데미스위트,
현대하이캐리온,
롯데캐슬모닝 등 ...
알고 봤더니 그 이유라네.
그것은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글 제공: 대중회 관리부장



유좌지기(宥坐之器)

옛날 중국에 공자가 살던 시기에 유좌지기(宥坐之器) 라는 그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공자는 주나라 환공의 사당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환공의 사당 안에는 의식에 사용하는 의례용 기구인 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이 기울어질 수 있도록 그릇을 매달아놓은 기구였습니다. 공자가 사당을 지키는 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그릇입니까.?” 사당지기가 대답하였습니다. “늘 곁에 두고 보는 그릇, 즉 유좌지기입니다..” 그 말에 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도 들은 적이 있거니와 유좌지기는 속이 비면 기울어지고, 적당하게 물이 차면 바로 서 있고, 가득 차면 옆질러진다고 하지요.” 천하의 성군이었던 환공은 평소에 속이 비면 이리저리 기울고 가득 채우면 옆질러지고 적당하게 물을 채워야만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유좌지기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잡고 욕망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글 제공: 상은 중보편집위원회 고문



종인 소개

풍수전문가 知山 沈載烈 博士



심재열 (沈載烈)

동국대학행정대학원겸임교수
인천대학경영대학원겸임교수
요산풍수지리학회회장

이번 호 종인 탐방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풍수 전문가인 심재열 박사를 만나 보았다. 경북 경찰서 경승실에서 이뤄진 인터뷰를 통해 심박사는 청송 심가는 시조부터 6세조까지 모두 대 명당에 선조를 모셔서 가문이 발전하여 조선시대에 삼한갑족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심박사는 도선 국사, 무학대사의 맥을 이어 받아 형기론의 기초를 세운 하남 장용득 선생의 수제자로 현장 풍수 연구에 노력해온 한국 풍수학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동국대 행정대학원, 인천대 경영대학원, 영남대 환경 보건대학원등 여러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국내외 현장을 돌아다니며 왕성 하게 활동 하는 풍수지리학의 대가이다. 명망 있는 가문에서 초빙 받아 풍수를 봐주기도 하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의 풍수 자문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로 정주영 현대 그룹 창업자, 정세영 전 현대산업 개발 회장, 신격호 롯데 그룹회장 등의 본인과 가족 묘 자리를 봐주었을 뿐 아니라 제 2 롯데 월드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빌딩은 어김없이 심박사의 자문을 받아 설계 단계부터 기획 되었다.

풍수지리의 핵심이론은 동기감응 즉 같은 기끼리 서로 감응 한다는 뜻이다. 조상의 기와 후손의 기가 서로 감응한다는 이론은 음택 풍수에 적용 되고, 주변의 기와 나의 기가 서로 감응 한다는 이론은 양택 (주택, 마을, 도읍지) 풍수에 적용된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전파는 상호 송수신이 가능한 것처럼 조상의 유골이 후손에게 파장을 보내 상호 전달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래서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온 이후, 풍수지리 학과가 개설된 것이다.

모든 물체는 파장을 일으킨다. 유전자 파장이 작용해서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DNA의 파동이 보이지 않은 전파와 같이 같은 유전자끼리는 파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DNA가 유전 정보의 매개체로 작용 한다는 실험은 1944년 미국의 에이버리에 의해 수행되었다. 에이버리는 그리피스 실험을 기초로 한 S형의 DNA가 비감염성 R형의 DNA에 전이 되어 감염성 S형으로 형질 전환 된다는 것을 확인 했다. 심박사는 원래 양택 풍수에만 관심이 있었

다고 한다. 음택 풍수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가족을 둘러싼 숨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집안이 풍비박산 되는 주산의 용이 배역하는 음택 풍수의 이론을 따라 5대조부터 묘 자리를 보니 할아버지 산소 뒤 내용이 배역하는 흥지였다. 장용득 선생의 제안으로 할아버지 묘지를 명당으로 이장 하면서부터 집안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곧 죽는 다던 아내가 20개월이 되자 완치 되었고 아이들도 이전의 성적을 회복하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

늘 변함없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심박사는 어느덧 국가의 보물과 같은 존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풍수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그 공력을 후배들에게 이어 주고자 후진 양성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심문의 자랑이라 하겠다.

다음은 심박사와 주고받은 인터뷰 내용이다.

어느 파 몇 대손이신지요?

안효공파(양지공) 25대손 입니다.

성장과정과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전북군산 출생입니다. 1963년 군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 1970년 경찰 순경공채로 재직중 1973년 하남 장용득 선생님으로부터 22년간 풍수지리 현장 사사를 받았으며, 1995년 한국 불교 태고종 승려로 득도 경승 활동을 겸하면서 2002년에 녹조 근정 훈장을 받은 후 일산 경찰서장 (총경)을 끝으로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쳤습니다.

2007년 동국대 경영대학원에서 풍수논문으로 경영학 석사, 2010년 인천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요산 풍수지리 학회 총무겸 부회장으로 활동 하면서 2001년 현대 정주영 회장 묘소, 2003년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 묘소, 2005년 현대 산업개발 정세영 회장 묘소, 2006년 롯데 신격호 회장 선친 묘소, 2011년 두원 그룹 정찬두 회장 묘소등 재벌기업 회장 묘소 선정 안장을 했습니다. 2002년 대학원에 풍수전공 석박사 과정이 신설 되고 부동산 학과에 풍수가 개설 되면서 인천대, 영남대, 동국대, 한성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동국대 행정 대학원에 생활 풍수 최고 지도자 과정을 개설 현재 15기를 모집 주임교수로 강의 중이며 2012년 요산 풍수지리 학회 회장으로 L 그룹, S 금융그룹, H 그룹등 대그룹의 풍수지문으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청송심문의 종사에 참여 하게 된 동기는요?

대중회에서 정안공 재각 선정 풍수 컨설팅 요

청이 있어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4세조 정안공 재각 자리를 잡아 주셨는데 풍수학적으로 어떤가요?

묘소 입구에 재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정상에서 내려오는 살풍이 있어 그곳을 피하면 건물배치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건물을 배치 한 것이며, 현 위치는 풍수적으로 용호가 감싸고 안산이 조용하고 있어 국세가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안정된 곳으로 재각위치를 정한 것 입니다.

풍수학적 측면에서 정안공 묘소 자리는 어떤가요?

정안공 묘소는 조선 8대 명당에 버금가는 한국에서 몇 안되는 대혈이요 대 명당 입니다. 주산의 장엄한 영기와 서기 래용의 변화적 생기, 보국의 조용적 웅기, 용호가 유정하게 휘감아 지키고 있는 혈을 천령지기가 상응 하여 주변의 온산들이 한혈을 위하여 존재 하듯 주위 산들이 집중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룡이 잘 감싸 주고 있어 자손들이 벼슬길에 오르는 대 명당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생활 풍수 최고 지도자 과정을 육성 발전 시켜 요산 풍수학회 정회원으로 학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 풍수 컨설팅, 문화센터 전문강사, 교수등 유능한 풍수사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인들에 하실 말씀은?

수천년간 전통과 맥을 같이한 풍수지리가 도 참적이고 미신적이며 술법적인 토속신앙의 측면으로 치부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알수 없는 힘, 기적등이 작용 하고 있어 면면히 내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클리버 박사와 여러 과학자들의 DNA 실험에 의해 동기감응이 밝혀 짐으로서 과학적인 학문으로 인정 받았습니

다. 서양에서는 돌풍을 일으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미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는 나와 자손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 종인들은 풍수를 보고 집과 묘를 선정하여 종인들의 발전은 물론 대중회가 날로 발전 하기를 기대 합니다.

대중회에 건의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대중회에서는 아직 문화재로 선정이 안 된 선조들의 명당을 향토문화 유산으로 국가에서 보존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글·대담: 재윤 편집위원
동 석: 갑택 문화이사



심재열 박사



풍수지리 현장실습 교육을 마치고



종인탐방자와 함께

2017 뿌리교육 행사를 다녀와서



심 준

서울대학교1학년
악은공 25대손

지난 7월 22일 토요일, 청송 심씨 가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관인 청송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바로 '2017년 뿌리교육' 행사였다. 이 행사는 청송 심씨의 후손들에게 선조님들의 행적과 그 은덕을 배울 기회를 부여해서 청송 심씨로서의 긍지를 심어주어 올바른 가치관으로 국가 번영에 이바지 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중학생부터 대학생, 청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청송이다 보니 자주 청송에 오는 편이었고, 아버지께서도 가끔 우리 가문에 대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은 있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문중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좀 더 심도 깊게 우리 가문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다. 특히나 현재 대학교에서 동양 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로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시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정 가문, 특히 내 조상님들의 역사에 대해 미시사적으로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안고 나는 행사가 열리는 주왕산온천 관광호텔 연회장으로 향했고, 행사장에 나뭇잎만 아니라 같은 성씨를 나누는 다른 일가친척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정된 장소에 나와 같은 조상님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많이 모여 있다는 것에서 신기함을 느꼈다.

행사는 1시부터 시작되었는데, 먼저 회장님의 인사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최소한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뿌리는 알아야 된다. 청송심씨로 태어난 자체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태어났다. 조상님이 이룩한 업적과 높은 인격을 이어 받아 더욱 발전된 나를 만들도록 노력해야한다. 장학생여러분은 우리 심문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선조님의 업적과 덕망을 거울 삼아 더욱 노력하여 우리 심문을 빛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인사말씀을 하셨다.

대중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간단한 인사와 대중회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그 다음 심씨의 시조이신 심흥부 시조님을 시작하여 4대 조상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와 조선 왕조에서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물론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시조 묘소에 가보기도 했고 특히 고향 마을이 덕천마을이기 때문에 바로 앞의 원부 선조님 사당에 가보기도 하는 등 조상님들에 대해서 아예 안 접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처음이어서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실내 행사 및 설명회가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청

송에 있는 시조묘소를 시작으로 가문과 관련된 여러 유적들을 답사하러 다녔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크게 찬경루, 악은공 단소, 송소고택, 시조묘소 등이었는데, 비록 날씨가 좀 많이 덥긴 했지만 각각의 장소마다 조상님들의 옛 숨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답사를 다녀왔던 장소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곳 몇 곳을 뽑으려면 앞서 언급한 네 장소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청송읍 중앙에 있는 찬경루가 기억에 남는데, 찬경루는 소헌왕후 심씨가 시조를 기리기 위해 그 아들 8대군이 지은 누각이다. 어릴 때부터 읍내를 지날 때마다 항상 보았던 누각이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찬경루, 찬경회관에 대해 알려 주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직접 근처, 눈앞에서 누각의 장대한 아름다움을 보니 왕자들의 효심과 건물에서 풍겨 나오는 소헌왕후의 자애로움과 기품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으로는 시조묘소가 기억에 남는다. 약간 높은 산기슭에 묘소가 위치해서 올라가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 묘소가 위치한 곳에 다다르자 주변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위풍당당하게 우리를 맞이하시는 시조님의 묘소를 보고 마치 그 분이 높은 위엄을 가지고 근엄하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묘소를 참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심씨 일가가 번성하도록 도와달라는 모든 일가친척들의 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다.

시조묘소를 지나 방문한 악은공 단소와 송소고택은 더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경의재는 향파의 시조인 악은공(諱:元符)의 위패를 모셔두는 재각이다.

전리관서까지 오르셨으나 고려가 멸망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을 주장하시며 아들3형제를 불러 '벼슬을 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농사짓고 글을 읽으며 남의 벼슬과 부귀를 부러워하지 말고 충과 효도를 이어가는 가문이 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두문동에 드는

날을 제삿날로 삼으라 하시며 관을 벗어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초립을 쓰시고 두문동으로 들어가셨다. 고려유신들이 은거한 마을을 두문동이라 했는데 조선왕조는 두문동을 포위하고 불살랐다고 전해진다.

원부 선조님의 시신도 찾을 수 없어 재각 옆에 비를 세워 단소를 만들어 봄(음력3월25일)에 전국에서 모인 후손들이 정성껏 제향을 올리고 있다.

저도 악은공 후손으로 선조님을 다시 생각하니 긍지와 숙연함을 금할 길 없다. 앞서 말했듯이 내 고향은 덕천마을이다 보니 이 두 장소는 정말 우리 할머니 댁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평소에는 그냥 집에서 쉬엄쉬엄 있다가 잠깐 산책할 겸 그 동네 근처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악은공 단소나 송소고택도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지나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단소에서 그 유래에 대해 좀 더 깊게 들 수 있었고 송소고택 내부를 자세히 보면서 조선 시대 양반 집안의 가정생활에 대해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 이렇게 심씨와 관련된 여러 장소들을 돌아본 후 저녁 식사를 한 후에 행사는 막을 내렸다.

사실 내가 청송 심씨라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과거에 명문 집안이었다고 많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문중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우리 가문에 대해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어서 좀 더 깊게 내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의미 깊었던 것 같다. 내년에도 본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심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랑스러워하는 문화가 생겨났으면 좋겠다.

여기 심준 학생의 지도교수가 추천서를 보내준 글을 올려본다.

지도교수의 추천의견

타고난 재능과 꾸준한 노력으로 최우수의 성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沈 駿 군은 2016년3월 인문학.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의 역사를 공부하겠다는 남다른 포부를 품고 저희 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자신이 세운 뜻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임하여 1학년 과정의 엄격한 상대평가 지도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沈 駿 군은 강의실 밖에서도 학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즐겁고 유쾌한 캠퍼스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타고난 재능과 성실한 생활태도, 그리고 차분한 성격의 沈 駿군이 앞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에 沈 駿 군을 대중회 장학생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상기 학생을 청송심씨대종회의 장학금 신청자격 요건에 따라 추천자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2월
추천자: 지도교수 구 범 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뿌리교육 장면



시조에 대한 역사 교육



시조묘소 앞에서



청송심씨시정공파(靑松沈氏寺正公派)종회



심익섭

시정공파종회장
대종회 이사
(주)부경피엠씨 대표

■ 종회구성

회장: 익섭/ 고문: 창섭, 영섭, 재성/ 총무: 규섭/ 감사: 재두

■ 17세 사복시정공 휘:현희(諱:賢希)의 선조 및 후손

◎ 11세 여주목사공 휘:우정(驪州牧使公諱:友正)

공의 호는 빈죽(賓竹)이며, 첨정공 휘:자(諱:鎡)의 셋째아드님이다. 1583(선조16)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형조, 예조, 호조, 공조의 좌랑을 거쳤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수습과 호종에 공훈이 커서 선무원종공신과 호종공신에 녹훈되었다. 배위는 안여경(安汝慶)의 둘째 따님이며, 첫 따님은 백사 이항복공의 증씨(仲氏)인 이산복공으로 여주목사공과는 동서간이다. 백사공은 목사공과 인척인데다 둘도 없는 친구여서 목사공의 신도비문을 썼다. 소생은 三子로 장자는 휘:혜(諱:諱)인데 도사 한공 휘:완(諱:浣) 청원위 한경록 증손의 따님과 결혼하였으나 아들이 없다. 차자는 충렬공 휘:현(諱:諱)인데 無男이나 막내사위가 박환(朴煥)으로서 어사 박문수의 고조가 된다.

◎ 12세 호간공 휘집(諱:諱)

여주목사공의 삼남으로 1596년(선조2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으며, 인조반정 후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636년에는 형조판서로서 남한산성에 왕을 호종하였다. 이때 왕족인 능봉군이 왕의 동생으로 판서인 공이 대신으로 가장했다가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1638년 서용되어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그러나 1644년 아들 청봉공이 청원부원군 휘기원(諱:器遠)께서 사건에 연좌, 유배되자 지병이 악화되어 타계했다. 숙종 때 우암공(宋時烈) 등에 의해 신원되었다. 배위는 직제학 남양 홍종록공의 따님이다. 시정공종회 부설 청회당문고에는 공의 시전지간찰 1점을 소장하고 있다.

◎ 13세 청봉공 휘:동구(諱:東龜)

자는 문징(文徵), 호는 청봉(晴峰)이다. 호간공의 독자로 태어나서 1615년 진사가 되고 1624년(인조2)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집의에 올랐을 때 남이공이 김상헌을 탄핵하려 하자 남이공의 부당함을 상소하고 사직하여 4년간 고향에 은거했다. 1641년 교리에 등용되어 종부시정, 應教 등을 역임하였다. 그 후 청원부원군 휘:기원(諱:器遠)의 옥사 때 인

척으로서 연좌되어 장흥에 유배되었다가 효종 초 석방되었다. 표석과 갈문은 송시열공이 찬하고 김진상공이 썼으며 영상 유척기공이 전하였다. 배위는 경주 김씨로 좌의정 김명원공의 손녀이다. 청회당문고에 공의 문집 『청봉집』 2책과 간찰을 소장하고 있다.

◎ 14세 오탄공 휘:유(諱:攸)

청봉공의 4남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중미(仲美), 호는 오탄(梧灘)이다. 23세에 진사가 되고 1650년(효종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주서와 검열을 거쳤다. 이어 전적과 병조좌랑 등을 지냈다. 현종 초에 보덕과 안변 부사를 지내셨다. 1674년 사간으로 제2차 북상문제로 유배 중인 우암공을 변호하여 광주에 귀양 갔다가 수찬, 승지, 황해도 관찰사, 대사간, 대사성, 이조참의, 부제학을 역임했다. 청회당문고에 오탄공필적집 1책, 가장 1책과 그 외 필적류 다수를 소장하고 있다.

◎ 15세 고양군수공 휘:한주(諱:漢柱)

오탄공의 1남 3녀의 장남으로 1646년에 태어나 1714년에 추하였다. 字는 一卿으로 고양군수를 역임하였고, 사후에는 이조참의를 증직 받으셨다. 지제교를 역임한 사위 김민택은 광은군 김진구공의 아드님으로 일찍이 진사가 되어 단숨에 정언과 수찬까지 올라갔으나 친형 김운택에 대한 논핵과 목호룡의 고변 등으로 인해 유배되는 등 불운을 겪었다. 김제겸, 조성복과 함께 신임사화 때 죽은 삼학사(三學士)로 일컬어진다. 청회당문고에 고양군수공의 간찰과 오탄공필적집 1책과 필적류 다수를 소장하고 있다.

◎ 16세 능주목사공 휘:봉휘(諱:鳳輝)

능주목사공 휘:봉휘께서는 1666년에 출생하여 1734년에 추하였다. 자는 여상(汝翔)이다. 배위는 풍산 홍주국공의 따님이다. 공께서는 1710년 진사시에 급제, 음보로 출사하여 공조정랑, 장악원 첨정 등을 역임하였다. 외직으로는 문화현령, 고성군수에 이어 청송부사와 능주목사에 이르렀다. 공께서는 효우심(孝友心)이 강하고 부지런하여 가정을 잘 다스리셨으며 송조위선정신도 지극하였다. 특히 청송부사 재임 시에는 시조보광산소의 위토를 70여복 확장하고 제기를 마련하여 보광·중대양산소의 수호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청회당문고는 능주목사공의 가장 및 배위 풍산홍씨 가장 원본과 필적 1점을 소장하고 있다.

◎ 17세 사복시정공 휘:현희(諱:賢希)

시정공 자손들의 파조(派祖)가 되신다. 자는 성보(聖甫) 능주목사공의 3남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셨지만 27세 때 졸하셔서 백형인 참판공 휘:성희 차남 휘:공유를 후사로 삼으셨다. 후에 사복시정을 증직 받으셨다. 지명은 삼연 김창흡공이 썼고, 묘표는 전재 임헌 회공이 썼다. 배위는 도정 광주 이성윤의 따

님이다. 청회당문고는 전재공이 쓰신 묘표원본을 소장하고 있다.

■ 입향조(入鄉祖)

◎ 20세 입향조 휘:능현(20世祖入鄉祖 諱:能顯)

경기도 오산에 최초로 정착하신 분(입향조)은 시정공의 증손자 휘:능현(諱:能顯) 자는 치문(釋文), 호는 청회당(靑淮堂)이시다. 공께서는 1804년 10월1일 출생하여 1868년 12월 19日 추하였다. 공(公)께서 1830년경 선영이 모셔져 있는 용인 청회리(현 오산 원동)를 새로운 근거지로 정해 입향한 이후로 청회당 직계와 1940년대 이후 방계 휘:능선(諱:能善) 후손들의 세거지가 되었다. 입향한 후 청회당께서는 산업을 일으키고 주경야독을 하셨다. 배위 연안이씨는 “유씨삼대록” 12권을 필사하셨다. 저본과 필사본은 청회당문고에서 소장하고 있다.

■ 종회연중행사 및 활동사항

* 매년 음력10월 둘째 일요일 시향 및 정기총회

◎ 종회 계획

* 사당 및 재각건립, 종회,박물관건립, 선조의 유고, 문집발간 등

* 2년 전 시정공 자손들이 소장하고 있던 유품들의 목록을 발행했고 곧 가칭 『靑松沈氏寺正公宗會 靑淮堂所藏品大白科』(약1,500쪽)을 간행할 예정이다. 현재 종회부설 청회당문고는 12,000여점에 달하는 청송심씨관련 문적과 서화류 및 기타 유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 대종회 사업에 대한 평가는?

* 종회의 구심점이 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종보편찬, 장학사업, 재각 건립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 당 중중에서도 금년에 종보 및 재각건립 기금 일부 찬조하였고, 내년도에는 장학금에도 일조할 계획이다.

◎ 종인들에게 바람

시정공과 종회는 소중중이지만 훌륭한 선조님의 유훈과 유덕을 잊지 말고 후손으로서 정직하고 바르게 처신을 함으로써 타에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종회의 행사 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통하여 상호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 대종회에 바람

시대의 조류에 따라 여성종원도 문중에 관심을 갖고 동참 할 수 있도록 뿌리교육은 물론 대종회 임원으로도 적극 영입하여 종회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문호 개방을 요망한다. 시정공과 문중관련 문집, 필적 등을 번역하여 청송회보지에 게재해 주시기를 바란다.

글·대담 : 갑택 문화이사



17세조 휘:현희 묘비 앞 시정공파 집행부



시제 모습



시정공파 정기총회 모습

대전 호 월드 뿌리공원에 설치된 청송심씨문중 조형물에 대하여...



작품명: 청송심씨의 얼

작품설명: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탑신은 청송심씨의 기상을 표현한 것으로 주왕산에는 우리 문중의 영기가 서려 있고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러 자손만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다 가장은 우리의 후손들이 전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문중의 사적을 기술하여 자신의 뿌리를 알고 송조돈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래: 경상북도 청송(靑松)을 관향(貫鄕)으로 삼은 청송심씨(靑松沈氏)는 고려조 고종(高宗) 원종(元宗)년간에 출생하신 문림랑공(文林郎公)

홍부(洪孚)를 시조(始祖)로 삼고 오랜 세월동안 위로는 조상(祖上)을 섬기고 아래로는 자손(子孫)을 보살피면서 국가주요(國家樞要)의 문중으로 현달(顯達)하였다. 문림랑공은 벼슬이 위위시승(衛尉侍丞)에 이르고 두 아드님을 두시니 長은 연(淵)으로 합문지후(閤門祗候)이고 次는 성(晟)으로 봉익대부(奉翊大夫)이다. 지후공이 아드님을 두시니 용(龍)으로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에 추증(追贈) 되었으며 2남을 두니 덕부(德符)와 원부(元符) 두 형제분께서 벌열(閥閱)의 문을 열으시었다.

봉익공은 2남을 두니 長이 판서공 연(漣)이고 次는 상호군공 경(卿)으로 그의 예손(裔孫)은 북한지역 고도에서 대대로 번연(蕃衍)하니 세거지가 되었다. 정안공(定安公) 덕부(德符)는 문무를 겸비하여 고려조에서 대명외교와 왜구토벌에 공을 세워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에 봉군되고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하였으며 조선조에 들어와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지고 정종조(定宗朝)에는 좌정승에 올라 경륜을 폈다. 공이 7남을 두니 1남은 인봉(仁鳳)으로 도총제요 2남은 의구(義龜)로 판사이고 3남은 계년(繼年)으로 지성주사이다. 4남은 징(澄)으로 인수부윤이고 5남은 온(溫)으로 영의정이며 세종국구로 시호(諡號)가 안효(安孝)이다 6남은 종(淙)으로 태조대왕의 2녀 경선공주를 맞아 부마도위 청원군이요 7남은 정(正)으로 동지총제이다.

악은공(岳隱公) 원부(元符)는 전리판서(典理判書)의 지위에 올랐으나 고려조가 종언을 고하자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의 절의를 지켰으며 세분의 아드님을 두니 1남은 천윤(天潤)으로 영동정이며 2남은 천주(天柱)로 현령이며 3남은 천식(天湜)이다.

그 외 자손들도 모두가 동량지재(棟樑之材)였고 계승승(繼繼承承) 잠영세족(簪纓世族)이 되어 국가를 이끌었다. 청성백의 5남 온(溫)의 따님이 세종대왕비 소헌왕후(昭憲王后)로 한때 부왕이신 태종(太宗)의 외척배격정책으로 멸문지경에 이르렀으나 왕후의 영민함과 공덕에 힘입어 위기에서 비켜날 수 있었으며 이후로 청송심씨는 동국 10대 별족으로 번영하여 왔다. 인구수는 우리나라 256성씨 중 38위지만 명현달사(名賢達士)를 수없이 배출하여 정계주요(政界樞要)의 각신(閣臣)으로 혹은 노사숙유(老士宿儒)로 청사에 그 이름을 남겼다.

13정승 2문형 3왕후 4부마에 정승(政丞) 중에도 영의정이 9명으로 각 문중 중에서 으뜸이며 내리 3대정승과 형제가 정승을 지내기도 했다. 대과급제가 196명이고 무과급제는 350여명 공신책록이 400여명이니 더 할 수 없는 영예이다. 역경(易經)에 착한 일을 쌓은 가문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움이 있다했거니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후손들도 각계에서 중추적인 역할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청송심문 家章



청송심씨(靑松沈氏)의 관향(貫鄕)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주왕산(周王山)과 소나무 그리고 심(沈)자로 표현한 현비암(賢妃巖)과 그 앞을 흐르는 용천강(龍川江)은 모두가 전통적(傳統的)으로 장생(長生)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형상화(形象化)하고 전체적(全體的)인 조화(調和)를 이루게 함으로써 우리 청송심문(靑松沈門)의 영원(永遠)한 번영(繁榮)과 자손만대(子孫萬代)의 무궁(無窮)한 발전(發展)을 기원(祈願)하는 의미(意味)를 담고 있다.

그리고 둘레의 원(圓)은 음(陰)과 양(陽)을 상징(象徵)하는 해와 달을 시각화(視覺化)한 것으로 선조(先祖)의 열과 찬란(燦爛)한 업적(業績)을 후손(後孫)들이 영원(永遠)토록 계승(繼承)하고 발전(發展)시켜 나갈 것임을 표현(表現)하였다.

각종 찬조현황 2017. 7. 18 ~ 2017. 9. 20

임원회비		중보찬조		재각현성금	
이사회비 50,000	상학(서울) 철용(대전) 민섭(광주) 형무(인천)	5,000,000 안효공파총회(회장 명옥)	60,000 강채(전남)	1,000,000 우경(서울), 재용(피산), 갑택 문화이사	
		300,000 상국(인천), 학강(서울)	50,000 민섭(광주), 웅보(부산)	700,000 학강(서울)	
		200,000 진주정수문중(회장 강남)	우경(서울)	100,000 언촌(수원)	
		100,000 상학(서울), 재량(서울)	30,000 성용(서울)	30,000 재경(부산)	
				10,000 정보(부산), 영보(부산)	
■ 재각 현성금 1천만원 이상은 준공시까지 사진게재					
도총재공파총회 회장 (민섭)	인수부윤공파총회 회장 (정구)	악은공파총회 회장 (상화)	안동중회장 (제덕 개인)	내금위중회 회장 (영구)	부사공파총회 회장 (영섭)
1천만원 2017년 7월	3천만원 2017년 6월	1천만원 2017년 5월	1천만원 2017년 4월	1천만원 2017년 4월	1천5백만원 2017년 3월
정랑공파총회 회장 (재운)	정인공파어비리 중친회 회장 (석문)	안효공파총회 회장 (명옥)			
1천만원 2017년 3월	1천만원 2016년 12월	3억원 2016년 12월			
■ 장학찬조					
					200,000 상국(인천)
					100,000 민섭(광주), 재량(서울)
■ 지로 중보찬조 1만원					
					재현 심성 봉남 한석 영만 민성 상록 재혁 재철 상영 유섭 진섭 형무 상연 무명5 상학
■ 중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진게재					
안효공파총회 (회장 : 명옥)	인천총회 (회장 : 상국)	광주청광회 (회장 : 재규)			
중보찬조 500만원 2017년 9월	장학·중보찬조 50만원 2017년 8월	중보찬조 50만원 2017년 6월			

제36회 강원감영문화제 개최

2017년 제36회 강원감영문화제가 “강원감영문화 600년 순력(巡歷)”이라는 주제로 10. 28(토)~10. 29(일) 거행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관찰사순력행사: 2017년 10월 29일(일) 13:00~16:00

- 행사 등록 장소: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255, 한성초등학교

■ 관향소식 - 심남규 -

청송 시조 묘재각 만세루(萬歲樓) 유형 문화재 승격

우리 분향 청송읍 덕리 보광사 경내에 있는 시조 묘 수호 재각인 만세루(萬歲樓)가 지난 9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509호로 승격됐다.



보광사 경내 만세루 전경

만세루는 정확한 건립연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청송군 관아지에 위치한 찬경루(경북 유형문화재 제183호)와 비슷한 시기에 당시 세종(世宗)이 청송부사 하담(荷擔)에게 명해 건립한 소헌왕후의 친가 청송심씨 시조 심홍부(沈洪孚)의 묘재각으로 건립됐다고도 전해오고 있다.

보광사(普光寺)는 사찰 내 본존불을 모시는 극락전과 문중의 시조묘를 추모하기 위한 묘재각인 만세루,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 등 유불선이 한곳에 모여 있는 곳으로 조선조 승유억불정책 속에서 유교와 불교, 도교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청송군-심수관家 한일다도문화교류회 개최

청송군과 일본거주 세계적 인 도예가 심수관가(沈壽官家) 한일다도문화교류회(韓日茶道文化交流會)가 지난 9월 8일



지난 9월8일 청송 민예촌에서 개최된 한일다도문화교류회 행사 모습

청송 주왕산관광단지내 민예촌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째 맞는 이번 행사는 청송군이 조선도공 400년의 혼을 잇고 있는 심수관가와 함께 선조의 예술혼을 이어가고 군민들의 인성과 예절 교육 등 다도문화 보급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청송과 일본 가고시마를 왕래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제15대 심수관 종인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항상 우리 조국과 시조할아버지의 분향(本鄉)이자 뿌리인 이곳 청송을 한번도 잊은적이 없으며,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매년 한국 방문 시 지역 종인들과 함께 시조 묘소를 참배하며 시조묘소 수호를 위해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도록 써달라고 금일봉도 전달하고 있다.

〈인사발령-축영전〉



인 심재석 박사의 아우이기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지낸 심재철 검사가 8월17일 법무부 장관 직속의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서울법대를 졸업한 심 부장 검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종보 편집위원

2017년 丁酉年 秋享祭 奉行 日程表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場所	主管
五	都摠制公(諱:仁鳳)	11.05	09.17	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小宗會
五	判事公(諱:義龜)	12.02	10.15	토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1315(설단)	小宗會
五	知成州事公(諱:繼年)	12.02	10.15	토	광주 광산구 송치동 용진산	小宗會
五	知成州事公 配位 崔氏	12.03	10.16	일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小宗會
五	仁壽府尹公(諱:澄)	11.05	09.17	일	전북 원주군 화산면 운산리	小宗會
五	安孝公(諱:濫)	10.04	08.15	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01, 산의실"	小宗會
五	三韓國大夫人 順興安氏	11.02	09.14	목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산32-1	小宗會
五	靑原君(諱:淙)	11.25	10.08	토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산14	小宗會
五	현령공(諱:天柱)	11.12	9月末週	일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845	小宗會
五	돈제공(諱:天滉)	11.29	10.12	수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小宗會
六	평산부사공(諱:灝)	11.19	10.02	일	원주시 단계동 사천마을 (설단)	小宗會
六	佐郎公(諱:溝)	12.02	10.15	토	전남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1315(재실)	小宗會
六	愛菴公(諱:涓)	12.04	10.17	월	광주 광산구 감적동 가정산	小宗會
六	良惠公(諱:石雋)	11.08	09.20	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19	小宗會
六	領中樞公(諱:澹)	11.18	10.01	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小宗會
六	恭肅公(諱:澹)	10.04	08.15	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1-1	小宗會
六	靖美公(諱:決)	11.19	10월첫째	일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21	小宗會
六	贈參判公(諱:孝卍)	11.03	09.15	금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설단)	小宗會
六	延日公(諱:自卍)	11.26	10월둘째	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小宗會
六	恭肅公 養父 康主簿公	11.09	09.21	목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산12-6	小宗會

공지사항

- 1) 연천 청성백·정안공 재각 준공식(11/3) 참석에 버스비 지원을 원하시는 종회는 대종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스대절 경비지원 신청서 (4세조 청성백·정안공 재각준공식(11/3) 단체참석)

■지역 : ■종회명 :
 ■버스임대료 : ■왕복통행료 : ■기사수고료(고정) : 50,000

번호	성명	전화번호	비고	번호	성명	전화번호	비고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 첨부서류 : 버스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 탑승인원은 40명 이상인 경우만 지원하며, 인원 초과 시에도 1대만 지원
 * 신청기간 : 2017. 10. 10 ~ 10. 20
 * 팩스 02-2269-7755 또는 우편접수 / 메일 : set217@naver.com

- 2) 각종 찬조금 명세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종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종보찬조 지로용지는 3월과 9월 종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찬조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임을 알려드립니다)
- 4) 모범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종인이나 종회는 갑택 문화이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 5) 2000년도에 발간된 대동세보(경진보)를 대폭 할인하여 1질(총11권)에 6만원에 보급 합니다.

송금안내

청성백 정안공 재각건립 헌성금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협 : 301-0159-0778-41

송금안내

임원회비·종보찬조·장학찬조·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협 : 301-0107-5873-71